홋카이도 교육대학 하코다테교 유학생에 의한 하코다테 리포트
항만도시 하코다테를 즐기다.

<2013.10.3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동현(한국), 소려근(중국), 협자(중국), 조삭(중국), Brenden Martinez(미국), Rosalind Harris(오스트레일리아), Susannah Lai(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사진 좌측부터). 현재 하코다테에서 즐거운 유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하코다테의 유명한 관광 유람선 '블루문'과 아카렌가(붉은벽돌)의 매력을 체험하러 갔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Torey Norman(오스트레일리아)도 리포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크루즈를 즐기다!

하코다테는 1859 년, 일본 최초의 국제 무역항으로서 개항된 항만도시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역사를 써온 하코다테의 아름다운 바다나 거리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은 BAY 에리어에 있는 관광 유람선 '블루문'을 탔습니다. 블루문은 바다에 떠 있는 달을 모티브로 하여 로맨틱한 하얀 크루즈입니다.

낮 시간대 크루즈에서 보는 하코다테는 매력적이고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갈매기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돌고래도 만날지도 모릅니다. 밤 시간의 나이트 크루즈를 탄다면, 하코다테항의 로맨틱한 일몰과 바다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불빛을 꼭 봐야 합니다.

사진처럼 블루문의 여정은 아름다운 바다와 바다에서 보는 하코다테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바닷바람을 느끼며 하코다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문은 전부 해서 2 층까지 있습니다. 1 층은 유리로 싸인 대합실로, 커피라도 한 잔 하면서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처럼 귀여운 곰돌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1 층에 블루문 기념 스탬프가 있으니 꼭 찍으세요!

2 층으로 올라가면 외부 갑판에서 직접 바다 냄새를 느낄 수 있고 하코다테의 거리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분은 벤치가 있으니 피곤하면 꼭 이용하세요!

블루문의 실내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 외관

배를 타고난 후, 저희는 하코다테의 관광·쇼핑으로 유명한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에 갔습니다. 선착장에서 걸어서 3 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카렌가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쇼핑몰입니다. 즉,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좌측의 사진처럼 베이 에리어에 늘어서 있는 창고 건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코다테 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사진도 매우 좋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로 사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카렌가 창고 안에 들어오면 다양한 종류의 잡화들이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곳에선 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멤버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하코다테 상징이자, 캐릭터인 '이카루 성인'의 애니메이션 DVD 와 상품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도 인기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아카렌가 창고는 어느 연령대라도 딱 맞는 곳입니다.

아카렌가 창고 안의 점포

치즈케이크 유명 점포 'Snaffles'

아카렌가 창고에는 당연히 맛있는 것들도 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선 하코다테의 인기 치즈 케이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창고 건물 중 하나인 洋物館(요부츠칸)에 있는 'Snaffles'이라는 가게가 팔고 있는 치즈케이크는 대인기였습니다.

시식도 가능하므로 어떤 맛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포크로 자르면 마치 반숙 오믈렛처럼 사르르 녹는 식감을 가진 수플레(계란과자)형의 치즈케이크입니다.

살살 입에서 녹는 느낌, 홋카이도산 원재료를 사용해 냉동은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매일 새로 구워낸다고 합니다. 초콜릿 맛을 더한 것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은 평범하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치즈 케이크라 한다면 또 한 군데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카렌가 창고 건물 'BAY 하코다테' 내에 '쁘띠 메르베이유'라는 가게가 팔고 있는 멜치즈도 추천합니다.

이 가게의 치즈케이크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사용하고 있기에, Snaffles 치즈케이크보다 치즈의 맛이 진하고 촉촉한 맛을 냅니다.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고, 순한 단맛과 은은한 신맛이 절묘한 밸런스로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집니다.

Snaffles 의 맛이 어린이들의 입에 맞는다고 한다면 '쁘디 메르베이유'의 맛은 좀 어른들 입맛에 맞는 맛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쁘띠 · 메르베이유' 의 치즈케이크

다리에서 바라본 경치

결혼식장 스텔라 마리스 교회

아카렌가의 두 건물은 왼쪽 사진처럼 다리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건너 편에는 디자인 오르골을 잔뜩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카렌가의 멋진 풍경을 즐기는 중에 위 사진과 같은 로맨틱한 장소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 마리스 교회는 결혼식장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봐 주고 있겠죠. 우리들 또한 행복을 기원하며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람선, 쇼핑, 맛있는 음식을 즐긴 후 마지막으로, 저희는 베이에리어 전체적인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어디든 매력적이고 올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놀러오세요! 반드시 구경하러 올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